

# 김영록 지사, “소비쿠폰 등 민생추경 집행 속도 내자”

###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위기 대응·SOC·재난 안전 등도 강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8일 “21일 시작되는 소비쿠폰 신청을 도민이 쉽게 하도록 도와 소비가 빨리 이뤄지도록 하는 등 민생추경 예산집행을 서두르고,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대응과 SOC사업도 속도를 내자”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동부지역본부에서 실무 정책회의를 열어 “정부추경이 확정됐는데, 정부예산 3개월 내 88%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속도감 있는 집행을 강조했다.

이어 “SOC처럼 설계가 필요해 당장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사업은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서 “노약자 등은 신청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읍면동 직원들이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직접 신청을 도와주기로 한 구례군의 소위 ‘마을 담당 공무원’ 모범 사례를 다른 시군으로 확산해 신청을 빨리 받고 소비도 빨리 이뤄지게 함으로써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하자”고 피력했다.

또한 “정부 민생추경에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 관련 예산의 경우 정부안(37억 원)보다 15억 증액된 52억 원을 확보했다”며 “소비쿠폰 때문에 더 많이 확보하지 못해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증액됐다는 것 자체는 전남지역에 위기가 있다는 걸 인정받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해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섬 방문의 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한 후 “동부권 해상풍력도 늦게 출발했지만 빨리 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동부권 SOC사업에 대해서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을 비롯해 철도와 국도·국지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대응을 철저히 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 추진하자”고 독려했다.

제안 대비와 관련해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비롯한 여름철 모든 재난에 철저히 대비해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자”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8일 오전 전남 동부지역본부 나철실에서 실무 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연재해와 인재(人災)의 경계가 모호한 만큼, 사전에 ‘중대재해처벌법’ 상 관련 의무를 철저히 지키는 등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영록 지사는 “동부청사가 지난 2023년 7월부터 개청 준비에 들어간 이후 2년 여간 현장 위주로 많이 뒀던 결과 도민들의 평가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라며 “특히 최근 여수 석유화학단지 기업의 어려움과

고용 불안정, 미국 관세폭탄에 따른 철강산업의 위기 등에 잘 대응해왔다. 앞으로 도민과 소통하면서 잘 대처해줄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민선 8기가 이제 1년 남았다. 마지막까지 미진한 사업을 잘 챙기고, 계속 사업 가운데 10여 년 가까이 오려 걸리는 사업도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며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염성호 기자



## 서구, 공직자 마음건강 위한 ‘행복약국’ 운영

### 찾아가는 힐링 프로그램으로 정서적 회복과 조직 활력 도모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공직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회복을 돕기 위한 ‘힐링 행진’에 나서며 건강하고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구는 반복되는 행정업무와 대민 업무로 인한 피로 누적, 정서 소진 등을 예방하고 조직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힐링 프로그램을 잇따라 기획·운영 중이다. 서구는 8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공직자들의 마음건강 증진과 정서적 여유를 위한 체험형 이벤트 ‘행복약국’을 열었다.

‘행복약국’은 ▲마음처방(회복탄력성과 현재 감정의 이해를 돕는 그림 검사) ▲운세처방(타로카드를 활용한 상담) ▲웃음처방(세컷사진과 캐리커처 촬영) ▲자세처방(체형·보형 분석)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 직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체계에 참여한 한 직원은 “업무에 지친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됐다”며

“직장 동료들과 함께 웃고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행복약국’은 지난해 첫 운영 이후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한 차례 추가 운영됐고, 올해는 직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본청 외 금호1동과 치평동 행복복지센터로 찾아가는 ‘행복약국’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행복약국이 직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심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조직의 정서적 회복력과 긍정 에너지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 5월부터 점심시간을 활용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 ‘쉽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5월에는 체형 교정 그룹PT를 진행했으며 6월 명상 클래스에 이어 7월에는 오일파스텔 클래스를 운영 중이다. /박석우 기자

## 광주 남구, ‘백일·돌 상차림 세트’ 무상 대여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백일과 첫 돌 같은 특별한 날을 맞은 관내 영유아와 가족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사하고, 상차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백일·돌 상차림 세트 무상 지원’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8일 남구에 따르면 구립 방재골 장난감도서관과 아이사랑 장난감도서관에서는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백일·돌 상차림 세트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백일과 첫 돌 준비에 나서는 부모에게

## 광주 남구, ‘백일·돌 상차림 세트’ 무상 대여 세탁비 부담하면 한복·드레스 등 의상도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기념일을 맞아 정성스러운 상차림을 준비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다.

상차림 물품은 화병과 조화, 액자, 실타래, 모형 백설기·케이크·절편·수수팥떡, 반점대, 모형 과일 등으로 구성됐으며, 연필을 비롯해 마이크와 실타래 등 돌잡이

용품도 포함되어 있다. 돌상 차림은 화병과 조화, 액자, 인형, 촛대, 모형 과일·마카롱·베이커리·미니 케이크, 다양한 돌잡이 용품 등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2곳의 장난감도서관에서는 의상 세탁비를 이용자가 부담하는 조건으

로 기념행사에 필요한 한복과 드레스, 정장 등 각종 의상에 대여한다. 다음 차례 이용자에게 깨끗한 의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세탁비는 1벌당 7,000원이다.

백일·돌 상차림 세트와 의상 대여 서비스는 장난감도서관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여 기간은 1주일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방재골 장난감도서관 ☎ 671-8400 또는 아이사랑 장난감도서관 ☎ 714-2051로 문의하면 된다. /임채일 기자

## 광주 동구(정장 임택)는 최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한국 서비스대상, AI 적용 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서비스 AI 리더십’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표준협회(KSA)가 주관하는 한국 서비스 대상은 고객 중심의 서비스 품질 경영을 실천한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서비스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이번 공모에는 대한항공, KT, LG전자, 삼성물산, KB국민은행 등 전국 유수의 30

## 지자체 최초 한국서비스대상 ‘서비스 AI 리더십’

### AI 종량제 배출함·청소차 도착정보 개발, 골목 쓰레기 해결

여 개 기업이 수상했으며, 이중 지방자치단체는 광주 동구가 유일하다.

‘서비스 AI 리더십’을 수상한 광주 동구는 전국 최초로 AI 종량제 봉투 배출함(특허)과 청소차 도착 정보 서비스를 개발하고 어플 ‘동구라미 ON(온)’을 통해 자원순

환을 위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편리함을 제공함으로써 골목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AI 종량제 배출함은 동구가 특허 출원한 제품으로, 머신 러닝으로 종량제봉투

이미지를 학습(빅데이터 분석)하고 AI가 종량제봉투만 인식해 투입구를 개폐한다. 또한, CCTV를 설치해 주변 지역의 무분별한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보안등으로 어두운 골목을 밝게 비춰주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외부 전력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는 민간기업과 손잡고 경량화 및 제작단가 절감, 디자인 혁신, 상용화를 위한 새로운 제품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오철수 기자

## 1면에서 이어짐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는 “불과 1년 만에 모든 건축허가가 끝이 났고, 착공을 눈앞에 뒀다. 강 시장과 시 관계자들의 강력한 의지와 신속한 행정지원 덕분에”이라

며 “광주의 고유문화와 콘텐츠, 미래기술이 융합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건물을 설계한 만큼 세계 관광객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글로벌 랜드마크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더현대 광주는 시민들이 누리고 즐기는 문화공간이자 떠나지 않는 광주만들기의 전략”이라며 “광주의

미래형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에는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더현대 광주를 비롯해 기존 신세계백화점과 광천터미널 부지 확장을 통한 ‘더그레이트 광주’ 복합 개발, 여등산관광단지 신세계프라퍼티가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가 각각 추진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6월18일 ‘더그레이트 광주’ 복합개발 사업계획서를 광주시에 제출하고 사전협의의를 진행 중이며, 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 1월 토지 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300억 원을 출자했다. /박도일 기자

## 북구, ‘중장년 1인 가구’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40대 이상 중장년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강화 목적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더 빛나는 나를 위한 프로젝트, 싱글업!(single+upgrade)”라는 주제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작년 말 기준 북구 전체 1인 가구(87,227세대) 중 40% 이상(35,081세대)을 차지하고 있는 40~64세 중장년 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결고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북구는 이번 사업에 올해 초 광주시 주관 생애주기별 1인 가구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확보한 2천 6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총 230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대상은 북구에 홀로 거주 중인 40~64세 중장년 주민이며 참여자에게는 ▲가정식 요리 교실 ▲필라테스 ▲목공예

등 취미·건강 프로그램과 ▲노후 설계 ▲경제교육 ▲정리수납 등과 같은 생활 밀착형 교육을 제공한다.

아울러 이번 사업이 단발성 프로그램 제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장년 1인 가구 커뮤니티 구축으로 나아가길 수 있도록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및 소셜다이닝 연계 성과공유회 개최 등 사후관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며 참여자는 회차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북구가 추진하는 중장년 1인 가구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은 북구 가족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여성보육과 또는 북구 가족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송현근 기자

